

충성대신보



호국간성의요람
육군3사관학교
경북 영천시 고경면 호국로 사서함 135-1

正論直筆로 忠誠臺의 價値創出을 先導한다. 2023년 3월 6일 월요일

제 199호

NEWS

- 02 학교소식 제 58기 졸업 및 임관식
- 04 학교소식 60기 입학 및 59기 진학식
- 05 생도광장 60기 5주간의 충성기초훈련
- 06 생도광장 4대 군종교구 지도자 합동 종교행사
- 07 생도광장 생도 생활을 뒤돌아보며
- 10 생도모집 2023년도 생도모집 광고
- 11 오피니언 사회저명인사 칼럼
- 12 교양 2023 트렌드 노트
- 14 동문소식 동문(同門)의 소리
- 16 발전기금 발전재단 소식



창간 1974년 5월 20일 / 발행인 방성대 / 편집인 임문택 / 주간 최재호 /
편집담당 길진규 / 편집국장생도 오찬을 / 충성대신문사(054)330-3605 www.kaay.mil.kr

199호 사진제공 및 편집: 상병 김세중, 송동익, 김영우, 설영환, 일병 윤춘기

국가에 충성을, 국민에 헌신을!

사관생도 제58기 477명(여성 48명), 졸업과 동시에 육군 장교로 임관 김세화 소위, 대통령상 수상 영예, 참전용사 후손 및 쏠 가족 간부 임관 등 눈길

지난 27일, 충성연병장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제58기 사관생도 졸업 및 소위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가족, 친지, 종동분회, 교직원 등 4,70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가족과 친지들은 국방홍보원이 SNS 채널로 생중계한 영상을 시청하며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육군3사관학교 제58기 임관식! 튼튼한 국방! 결전태세 확립!

졸업성적 우수자



● 병과: 포병
● 장교 지원동기
병사로 만기 전역한뒤 장교로 임관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싶은 마음에 지원

대통령상(1등)
김세화



● 병과: 항공
● 장교 지원동기
사랑하는 사람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함이며, 이들의 행복은 나의 행복이기에 지원

국무총리상(2등)
박광민



● 병과: 보병
● 장교 지원동기
생도로서 맛과 품위를 유지하고 미래 국방 안보를 책임지는 정예장교가 되기 위해 지원

국방부장관상(3등)
김건아



● 병과: 보병
● 장교 지원동기
어렸을 때부터 국가를 수호하는 직업을 갖고 싶었으며 장교로 임관하여 완벽한 임무 수행을 할 자신이 있었기에 지원

합참의장상(4등)
유에나



● 병과: 항공
● 장교 지원동기
병 생활 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3사교를 통해 개선 및 발전하여 군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원

연합사령관상(5등)
이동형



● 병과: 항공
● 장교 지원동기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장교로 임관하여 국가 안보의 간성(干城)이 되고자 지원

육군참모총장상(6등)
박지훈



● 병과: 보병
● 장교 지원동기
현역병시절 GP경계 작전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강하고 실력있는 정예장교가 되기 위해 지원

해군참모총장상(7등)
윤정욱



● 병과: 정보
● 장교 지원동기
6.25전쟁을 회상하며, 조국이 위태로울 때 진정으로 필요한 장교가 되고 싶어 지원

공군참모총장상(8등)
조준범

병역이행 명문가, 3대에 걸친 육군 간부의 길 선택!
가족과 함께 육군 간부의 길을 걷다!
청년 사업가에서 장교로, 해외 유학 중 병사 복무 후 장교 임관!
자격증 다수 획득,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장교 임관!

이날 졸업과 동시에 소위로 임관한 제58기 477명(여성도 48명 포함)은 지난 2021년 입학하여 미래 국방의 초석이 될 육군 장교가 되기 위해 정진해왔다. 2년 동안 강도 높은 군사훈련과 일반학 교육을 병행해왔으며, 이날 군사학과와 함께 일반학사 학위를 동시에 취득했다. 학교장(소장 방성대)은 식사(式辭)를 통해 “가슴에 품었던 큰 꿈을 바탕으로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 헌신하는 장교가 되길 바란다.”는 당부와 함께 축하인사를 전했다. 소령 이상민



화제의 인물 / 병역이행 명문가

병역이행 명문가
정도영

- 조부: 육.예) 하사
- 부: 육.예) 소령
- 모: 육.예) 중사
- 동생: 공. 하사
- * 現 8전투비행단 103대대 전술정보담당

병역이행 명문가
김찬규

- 조부: 육.예) 하사
- * 6·25 참전용사
- 부: 육.예) 중사

병역이행 명문가
이태현

- 조부: 육.예) 상사
- * 6·25 참전용사
- 부: 육.예) 대위
- * 現 고성군예비군 중대장
- 형: 육.중사
- * 現 27기갑여단

화제의 인물 / 육군 간부가족

7남매 중 4명이 간부
정원표

- 총 7남매 중 여섯째
- 셋째: 정예림 중사 (21사단)
- 넷째: 정예지 중사 (6사단)
- 다섯째: 정원준 중위 (55사단) * 3사 57기

부자녀 3사 동문
강문정

- 부: 강석진 대령 (육.본) * 3사 28기
- 동생: 강동현 중위 (7군단) * 3사 57기

부자 3사 동문
이지훈

- 부: 이원석 중령 (51사단) * 3사 32기

부녀 3사 동문
최윤서

- 부: 최규화 중령 (2군단) * 3사 31기

화제의 인물 / 특이 이력 보유

청년 사업가 → 장교
이찬형

- 스타트업 대표 - 자전거에어백 사업 * 특허 등록 및 상품화

해외 유학 중 귀국
송문근

- 해외 유학 - 말레이시아 사바주립대
- 병사 복무: 55사단

자격증 16개
이수빈

- 어학 - 토익(970점) - 오픽 등
- 무도 - 호신술 5단 - 합기도 4단 - 태권도 3단 - 유도 1단
- 기타 - 전산, 소방안전 등

자격증 15개
박세은

- 어학 - 토익(970점) - 토익스피킹 - HSK 3급 등
- 상담 - 음악심리상담사 등
- 무도 - 태권도 3단
- 기타 - 스피치 지도사 - 안전지도사 등

제 60기 사관생도 입학

60기 444명, 5주간 충성기초훈련을 거쳐 21일 정식 사관생도로 입교 형제 동반 입교, 특전부사관 출신, 해외 유학생 등 이색 인원 눈길

60기 사관생도 444명(여성 52명 포함)이 5주간의 충성기초훈련을 끝내고 21일 입학식을 통해 정식 사관생도가 되었다. 코로나19로 4년 만에 외부인사를 초청한 이날 행사에는 가족, 친지, 종동분회, 교직원 등 2,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유튜브,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행사 모습을 생중계했다. 이날 입학한 신입생도 444명은 지난 1월 12일 가입교한 이후, 충성기초훈련을 통해 가치관 정립, 인성함양, 기초전투기술 함양 등 사관생도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과정을 마쳤다.

육군3사관학교 제 60기 입학 및 제 59기 진학식



입학선서



입학생도 분열



“이날 학교장(소장 방성대)은 축사를 통해 “각자의 다양한 재능과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길 바라며, 국가에 충성을, 국민에 헌신을, 가슴에 큰 꿈을 품는 정예장교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수자 상장 수여

학교 전 장병과 선배 사관생도, 외부 인원들의 축하와 격려 속에서 시작된 행사는 성화 점화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입학 및 진학 신고, 우수자 상장 수여, 입학증서 및 학년장 수여, 분열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분열이 시작되자 입교 전의 모습과 달리 능글능글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행진하는 60기 사관생도들의 모습에 학부모와 가족들은 이끼없는 찬사와 힘찬 박수로 격려했다.

60기 생도 중에는 화제의 인물도 많았다. 형제인 장혁(24세)·장원(21세) 사관생도는 동기가 되어 동반 입교하였고,

이경민 생도(21세)는 자신의 누나인 58기 이유현 소위의 뒤를 이어 정예장교로 가는 길을 함께 걷게 되었다. 이외에도 가족 중에 현역·예비역 장교가 있는 군인 가족 생도가 42명, 현역 복무 중에 입교하거나 복무를 마친 생도가 69명에 달했다. 미국 미네소타 주립대학교를 수료 후 귀국하여 입교한 한승연 생도(25세)를 비롯하여 해외 유학 중 장교의 길을 걷고자 입교한 3명의 생도도 눈길을 끌었다.

특전 부사관으로 복무 중 장교의 뜻을 품고 입교한 온운호(23세) 생도는 “특전사에서 복무하면서 해외 파병, 육군

최정에 300위리어 선발 등 다양한 성과를 이루었다. 이제는 팔로워보다 리더로 성장하고 싶어 육군3사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다”고 입교 소감을 밝혔다.

생도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전공과목과 군사학을 이수하고 졸업할 때 일반학과 군사 학위를 동시에 취득하게 되며, 엄격한 자기관리를 통해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을 확립한 정예장교로 성장하게 된다. 또한, 이날 4학년으로 진학하는 59기 생도 482명(여성도 49명 포함)도 함께 축하의 시간을 기졌다. 주무관 길진규



▲세심의식
신입생도들의 새로운 생활을 위한
마음과 각오를 다짐하는 행사



▲행군



▶각개전투

4주차



▶영천 지역탐방
메모리얼파크, 은혜사, 임고서원



5주차

▶수료식



3주차

▶호랑이굴 의식
재교생들이 신입생도의
입교를 환영하고 격려하며
맞이하는 행사



▼선배와의 대화
박윤미 중위, 56기



2주차

▶집중제식

생도 60기 5주간의 충성기초훈련



1주차

▶총기수여식



▶학교장 지휘역량강화교육



가입교주

입교 등록

가입교식

“ 60기 사관생도들은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16일까지 5주간의 충성기초훈련을 받았다. 군인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지휘역량 강화 교육을 시작으로 생도 기본자세 체득, 개인화기, 전투 부상자처치, 각개전투, 집중인성교육 등을 통해 생도로서 기본 소양을 체득하였다. ”

58기 졸업 및 임관 축하 종교행사

4대 종단(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학교첫 합동방문



기독교종교행사



천주교 종교행사



불교 종교행사



원불교 종교행사

지난 2월 22일, 4대 종단(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군종교구 지도자들이 58기 졸업 및 임관식을 기념하여 종교행사를 합동으로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기독교 군종교구 사무총장 이정우 목사와 천주교 군종교구장 서상범 주교, 불교 군종특별교구장 능원 스님, 원불교 군종교구장 문정석 교무가 함께했다.

4개 종단 지도자는 학교 견학을 실시한 뒤, 종교행사를 통해 사관생도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학교 군종실은 올해 58기부터 군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임관 전 전시군 종합동 소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주무관 길진규

제16대 및 17대 학교 주임원사 임무교대식



▲ 학교장(가운데)과 제17대 신임 주임원사(왼쪽), 제16대 이임 주임원사(오른쪽)의 기념사진

지난 1월 16일, 철기장군실에서 학교장(소장 방성대)과 주요직위자를 비롯한 부사관단, 장병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제16대, 제17대 주임원사(전임원사 이동근, 후임원사 이경우) 임무교대식을 가졌다.

학교장은 “지난 16개월 동안 학교 주임원사의 직책을 훌륭히 수행하고 전역을 앞둔 이동근 원사의 임기간 노고를 치하하고, 학교의 발전과 새로운 부사관 문화 정착을 위해 취임하는 이경우 원사의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활동을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신임 이경우 주임원사는 지난 1990년 특전부사관으로 임관한 이후, 전후방 각지와 해외파병부대 등에서 부사관의 주요 직책을 역임하였다. 한편, 이임하는 이동근 원사는 지난 2월 3일 전역식을 가졌다.

주무관 길진규

군악대, “따뜻한 마음을 음악으로 함께 나눕니다”

지역 아동보육시설 ‘영천 희망원’ 방문을 통한 재능기부와 봉사활동 실시

군악대 장병들이 지난 1월 31일, 지역 아동보육시설인 ‘영천 희망원’을 방문하여 재능기부와 봉사활동 선행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연말연시와 설 명절을 맞아 원생들과 마음을 나누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군악대는 일과시간 및 개인 휴식시간을 활용하여 명절 전부터 공연을 준비했다.

군악 공연은 다양한 연령층이 모인 원생들을 고려하여 ‘아기 상어, 행복을 주는 사람’ 등 모두가 좋아할 수 있는 밝고 즐거운 곡 위주로 공연을 기획했으며, 공연 내내 원생

들은 노래를 함께 따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복도, 화장실, 주방 등 공용공간 청소 봉사활동, 일렉·베이스 기타, 드럼, 신디사이저 등 다양한 악기 레슨으로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를 추진한 장문성 소령(군악대장)은 “밝은 원생들의 얼굴을 보니 재능기부와 봉사활동 보람을 크게 느꼈으며, 1회성 행사가 아닌 희망원과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도움을 주고 싶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무관 길진규



▲ 군악대 장병들의 음악공연과 악기 레슨 모습

1, 2월 학교 간부 전·출입자 명단

전입 육군3사관학교 전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 생도대 한상우
- 교수부 최규진
- 교수부 김대은
- 교육지원대대 김용한
- 교수부 고승범
- 교수부 정상준
- 교수부 홍충표
- 교육지원대대 이혜영
- 교수부 성낙영
- 교수부 정영민
- 교수부 김홍재
- 교육지원대대 김인주
- 교수부 신성균
- 교수부 박정민
- 군무지원단 정미근
- 교육지원대대 이태원
- 교수부 강동길
- 교수부 허구성
- 군무지원단 변상미

전출 육군3사관학교는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

- 생도대 김도형
- 국방어학원
- 군무지원단 김선관
- 25사단
- 교수부 왕영민
- UAE 파병
- 군무지원단 이규민
- 21사단

생도 생활을 뒤돌아보며

2년이라는 생도 생활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 충성대에 입교했을 때의 충성기초훈련부터 얼마 전 마무리했던 동계군사훈련까지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던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2년을 돌아보면 모든 순간이 순탄하고 즐거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쁜 일정과 훈련의 나날 속에 지치기도 했으며,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회의감도 들었지만, 매 순간을 극복했고, 극복했던 순간들은 앞으로 아련히 나갔을 때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생도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느낀 건 대인관계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활동이 협동과 단결을 요구하고,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동기·선배·후배들과의 협력이 필요하였기 때문입니다. 육군의 전투 플랫폼은 궁극적으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 주위 사람들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며 배양한 포용력과 이해심을 함양해서 아전으로 나간다면 소대장으로서의 리더십을 더 잘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학교의 많은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축소되어 58기나 59기 생도들이 누리지 못했던 것이 많아 아쉬웠지만, 하루빨리 코로나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 순간이 찾아와 앞으로 입교할 많은 후배가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학교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도 충성대에서 훌륭한 커리큘럼에 따라 2년간 배우고 체득화한 것들은 소대장으로서 임무수행하는데 큰 디딤돌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충성대 신문사의 기자 생도로서 기사를 작성하며 신문과 함께 만들어가는데 일조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행복했던 점도, 그리고 아쉬웠던 점도 많았지만 낯선 곳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좋은 경험을 함께하면서 무사히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58기 생도들을 비롯한 앞으로 생도대를 이끌어갈 59기, 60기 생도들까지 모두 만족스럽고 행복한 미래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다 같은 동기

새롭게 떠오르는 2023년의 해가 밝았다. 60기 생도들 또한 충성대에서 사관생도로 거듭나기 위해 모여들었고, 이들을 지도하기 위하여 기훈파생도들을 선발하였다. 초기에는 자신만의 신념과 뜻을 가지고 기훈생도들을 지도하던 생도 중 몇몇은 기초군사훈련이 끝나가는 시점에 이르러서는 초심을 잃고 자만하여 같은 동기들에게마저 허영심에 찬 행동을 보인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동기이며, 우리에게 위아래로 이분 되는 계급은 없다는 것을 기억 해주었으면 한다.

미꾸라지

누구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리게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과연 그게 전부일까? 사실 미꾸라지가 물을 흐리게 하는 것은 산소를 순환시켜 생태계를 풍부하게 유지하며, 그들의 점액으로 물을 정화하는 역할까지 한다. 또, 누구는 얘기한다. 생도들이 그들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 극소수를 제외한 생도들은 미꾸라지들은 물을 흐리게 하는(?) 활동을 통해 또 다른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고 있지 않을까?

신발 끈

신고 있는 신발의 끈이 풀리면 어느새 매듭이 지어져 있던 부분뿐 만 아니라 신발 끈 전체가 느슨해진다. 여기서 더 나아가 신고 있던 신발마저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다. 생도들 개개인이 스스로 단단히 묶여있는 매듭이 되어 굳건히 자신의 역할을 해주어야 나머지 그리고 3사관학교 전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는 항상 스스로가 느슨해지진 않았는지 생각해야 한다.

새해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가고 새해가 밝았다. 각자 위치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새해를 맞아 서로 축하받고 축하해야 하지만, 풀어지는 분위기를 틈타 또다시 행정예규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생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어차피 이제 임관인데 무슨 일을 당하겠어?”
“이제 4학년인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겠어?”

장차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장교로서, 이를 위해 정진하는 사관생도로서, 이러한 마음가짐은 가져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처음 이곳 충성대에 발을 디디고자 하였을 때의 마음가짐이 무엇이었던지 다시 한

생도대 대 나무 숲

이 글은 생도들의 실제 시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신독

생도들이 기초군사훈련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바로 '신독' 일 것이다. 58기의 임관, 59기의 진학, 그리고 60기의 입학까지 완료된 현시점에서 우리는 생도 문화에서 신독의 가치가 실현되고 있는지 스스로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신독은 단순히 규정과 방침만을 지켜야 한다는 단순한 의미만을 지닌 것이 아니다. 신독의 진정한 의



60기 기훈생도

들은 과거 선배 기수들도 그랬듯, 입교 당시 앞날에 대한 기대보다 불안이 더 컸던 것이 사실이지만, 59기 기훈과견생도들의 지도 덕분에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서 하루하루 변화했다는 것이 기훈생도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특히, 군인으로서 정진해 나가야 할 자세를 일깨워줌과 동시에 사관생도의 명예와 책임을 올바르게 알려주어 고맙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렇듯, 60기가 충성기초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옆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고 올바른 사관생도의 길로 갈 수 있게 안내자 역할을 해주는 기훈과견생도들이 기입교 기간에 느꼈던 소감을 들어보자.

기훈과견생도 소감

59기 국장생도 오찬울

새로 입교하는 생도들에게 기훈과견생도는 없어서는 안 될 고마운 존재다. 내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지 못하면 사람은 의욕을 잃고 제대로 일을 수행하지 못하듯이 기훈과견생도의 책임은 막중하다. 앞으로도 기훈과견생도는 매년 입교할 후배들을 위해 묵묵히 임무수행을 해나갈 것이며, 이들이 올바른 길로 걸을 수 있게 인도하는 선배가 될 것이다.

A생도 : 기훈생도들이 군인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고, 어떻게든 배우려는 모습을 보여 내 스스로를 거울에 비추어 과거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훈생도들과 서로 가르침을 주고받는 존재였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매우 행복합니다

B생도 : 멋있는 후배를 양성하기 위해 좋은 마음으로 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제한사항도 많았고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끄는 대로 잘 따라와줘 가르친 보람이 있었고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C생도 : 60기는 충성기초훈련을 거치며 사회에서 배웠던 습관들을 조금씩 벗어던지고 사관생도로 환골탈태했습니다. 완성형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무엇보다 견줄 수 없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D생도 : 이제 본격적인 생도 생활에 앞서 몸풀기를 마쳤습니다. 60기 생도들에게 기댈 수 있는 선배 생도가 되기 위해 곁에 머물 것이며, 저 또한 정진해나갈 것입니다

60기 기훈생도가 부모님께 보내는 편지

60기 박성현 생도

To. 아빠
아빠, 많이 걱정하셨지만 아빠의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이곳 충성대에서 훈련 잘 받고 있어. 작년 이맘때 군대를 가지려고 기술향상방으로 지원했었을 때 기억나? 인생에 한 번뿐인 군대에 장교로 가서 위풍당당하게 생활해보는 것이 어떨까? 아빠가 애기했었을 때, 그 말을 듣고 아빠의 후배로 왔어. 아빠는 지금 이 순간이들을 떠나보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제 곧 입학식을 끝내고 생도 생활을 시작하겠지만, 충성기초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현재는 후회하고 있지 않아.

퇴교하는 동기들이 많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할아버지, 아빠를 뛰어넘어 전국 수훈라는 명예를 받고 싶기도 하고, 핏이 좋은 생도복을 입고 당당히 집에 가서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2년 동안 생도 생활을 잘 마치고 장교로 임관하면 나중에 항공병과를 가서 합기도 타보고 싶고, 특전사 가서 다양한 작전에 투입되어 소환해보고도 싶고 감찰도 해보고 싶고 해외파병도 기보고 싶고. 지금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순 없겠지만 집에서 가족들이랑 같이 응원해줘!

아빠의 조언과 지원 덕분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고, 틈틈이 자기개발을 하면서 매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될게. 아빠한테 아빠는 별로 보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었지만, 사실 너무 보고 싶고 또 감사해. 아빠 사랑해

60기 충성기초 훈련



60기 리도예 생도

To. 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매일 10분씩 통화해도 제 걱정을 하고 계시지 않아요. 부모님께 소소한 편지를 써드립니다. 오늘따라 엄마가 만드신 닭볶음탕이 그렇게 맛있어요. 포슬포슬한 감자에 닭다리살을 넣고 국물에 담가 먹으면 정말 맛있을 텐데, 아쉽습니다.

오빠도 버티낸 기훈 생활이기에 아무 걱정 없이 입교했는데, 입학식이 일주일도 안 남은 지금, 오빠가 세삼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오빠만큼, 아니 오빠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지만, 지금은 잠시 내려놓고 열심히 공부하고 운동해서 행복했던 적이 없었어. 거기서 많은 눈물과 땀을 흘렸지만 이제는 적응해서 행복합니다. 기훈 생활이 얼마 남지 않아 아쉽습니다. 남은 기간에 최선을 다해서 멋진 사관생도로 거듭나겠습니다. 부모님의 딸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입학식 때 멋진 분얼과 함께 당당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칼럼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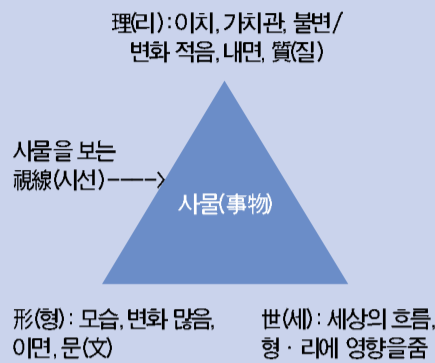


중령 최재호 (교수부 교학처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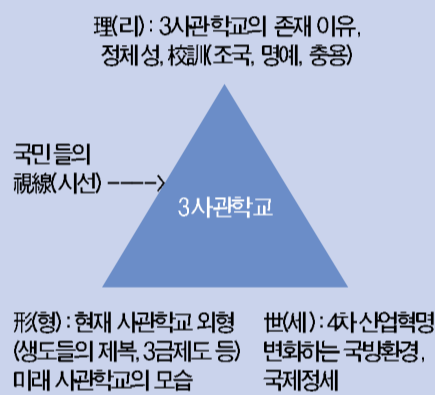
觀物法(관물법)과 육군3사관학교의 변화

사물(事物)은 물질세계에 있는 모든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존재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사(事)’와 ‘물(物)’로 의미가 구분되어 있었다. ‘事’는 인간과 사회의 관계를 이르는 ‘인사(人事)’와 관련된 용어였고, ‘物’은 자연의 법칙을 이르는 말이었다. 선인들은 ‘사물(事物)’을 관찰(觀察)하면서 그 사물이 지니는 의미를 찾으려 했으며, 이를 ‘觀物法(관물법)’이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시각(視角)의 차’로 인하여 사물의 겉모습, 즉 표면(表面)을 바라보고자 하기도 하였고, 반대로 사물안의 이면(裏面)을 바라보기도 하였다. 그리고 어떤 이는 그 사물이 가진 표면과 이면이 발생하게 된 배경 및 환경을 살피려는 시도도 하였다. 사물의 **형태(形)**만을 바라보고, 그 표면만을 인식하려 하는 관물법을 觀物察形(관물찰형)이라고 불렀다. 반대로 형태보다는 그 사물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이치(理)**, 를 찾으려는 인식형태를 觀物察理(관물찰

리)라고 명명하였다. 어떤 이는 사물을 바라볼 때, 그 사물의 표면과 이면이 만들어지게 된 **세상의 흐름(世)**을 사물에서 찾으려는 인식형태를 취했는데 이를 觀物察世(관물찰세)라고 불렀다. 이를 도식하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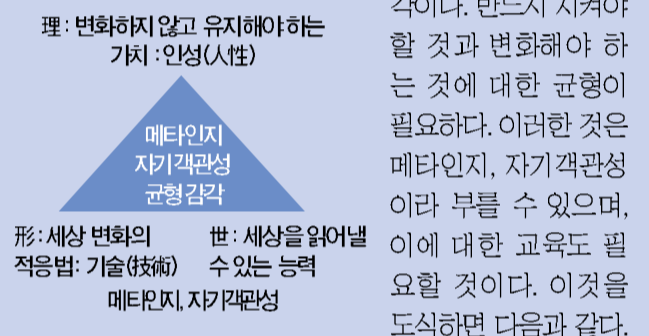
形에 영향을 준다. **世(세)**는 세상의 환경, 변화를 의미하며 理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形의 모습을 결정짓는다. 사관학교를 하나의 개별자라고 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관물법을 적용해 보면 ‘관물찰형’의 입장에서는 3사관학교 현재와 미래의 외형을 찾을 수 있다. ‘관물찰리’의 입장에서는 3사관학교의 정체성, 교훈 등을 떠올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관물찰세’의 입장에서는 4차 산업혁명, 변화하는 국방환경, 국제정세 등을 통해 사관학교를 바라보게 된다. 도식하면 아래와 같다.



지금부터는 이전과 다르게 리세형 순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理(리)는 내면의 이치로, 다른 말로 質(질, 바탕)로 표현하기도 하며, 기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려는 求心力(구심력)을 갖추고 있다. 世(세)는 세상의 흐름, 환경의 변화를 이르는 말로, 기본적으로 변화하려는 遠心力(원심력)을 갖추고 있다. 形(形)은 이면의 형태

로 다른 말로 文(문, 겉모습)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形은 理와 世의 영향을 받아 최종적으로 그 모습을 갖추는 가치 중립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3사관학교는 理의 성질을 가진 3사관학교의 가치, 정체성을 잘 유지한 채 世가 요구하는 4차 산업혁명, 국방개혁, 국제질서의 모습을 잘 파악해야 한다. 理가 지니는 구심력과 世가 요구하는 원심력 사이에서 그 균형점을 제대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월대보름의 세시 풍속인 쥐불놀이로 생각해 보자. 불을 매달아 회전시킬 때, 구심력이 너무 강하면 화상을 입는다. 반면에 원심력이 너무 강하게 되면 줄이 끊어지게 된다. 두가지가 다 조화를 잘 이루게 될 때 회전하는 아름다운 불을 모습(形)을 볼 수 있다. 그러면 3사관학교의 교육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첫째, 理의 입장에서는 사생관, 군인관 등 사관생도가 지녀야 할 인성(人性) 함양 중심의 인문사회학 중심의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世의 입장에서는 세상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기초학문과 복합 신학문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고전 학문과 신학문이 모두 포함된다. 셋째, 形의 입장에서는 세상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기술(技術), 즉 이공학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 여기에 더 필요한 것은 구심력과 원심력의 균형을 유지하는 균형감각



각이다. 반드시 지켜야 할 것과 변화해야 하는 것에 대한 균형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은 메타인지, 자기객관성이라 부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이것을 도식하면 다음과 같다. 세상(世)은 현재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세상의 변화에 학교도 바뀌어 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만, 학교가 지녀야 할 가치(理)가 변질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정확히 그 균형(中庸)을 찾을 수 있는 해인을 통해서 진정한 3사관학교의 모습(形)은 구현되리라 생각한다.

칼럼 II



중위 조대현 (사회학처 경제경영학 교수)

장교로 임관할 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준비물이 하나 있다. 운전면허증? 체력 특급? 다름 아닌 ‘학사 학위’가 그것이다. 학군/학사사관은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만을 장교로 임관시킨다. 더 나아가, 우리 학교를 포함한 사관학교들은 소중한 세금을 사용해서 사관생도들이 여러분들에게 학사 학위를 취득시킨 후 장교로 임관시킨다. 도대체 학사 학위가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

2019년 기준 국내 성인(25~64세) 중 절반이나 학사 학위를 갖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만 매년 60만여 명이 학사 학위를 받는다.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그 등 해외의 유명 기업 창업자 중에는 오히려 대학을 자퇴한 사람들도 꽤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전 대통령, 기업을 등이 고졸인 경우가 있었다.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5·7·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응시할 수 있으며, 민간기업에서는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여 학력·성별·나이 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유행이다. 그런데 왜 유달리 장교한테는 학사 학위를 요구할까? 장교에게 요구되는 역량에 대해 감히 정의해보자면, 장교는 복무기간 내내 급변하는 환경·업무 속에서도 항상 준수한 결과물을 내

야 하는 사람이다. 또한, 지휘자/지휘관으로서 부하를 통솔하며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다. 매 순간의 의사결정의 연속이자 그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필자는 군대에서 요구하는 학사 학위란 ‘무언가에 대해 생각해본 적 있는 증명’이라고 본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학사 학위는 내가 무언가에 대해 생각해본 적 있음을 ‘증명’해주는 수단이다. 부하들을 지휘할 때 학사 학위라는 징표가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의 고등교육을 받았고, 나의 판단을 믿어도 된다는 것을 쉽고 빠르게 증명해줄 것이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학사 학위는 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특정 전공에 대해 생각해보는 ‘경험’을 제공한다. 새로운 것을 학습해본 경험은 복무 중 낯선 과업을 마주할지라도

바르게 생각하고 준수한 결과물을 낼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이것이 학사 학위가 갖는 의미이며, 장교로 임관할 때 학사 학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졸업하고 임관하는 58기 생도들! 여러분들은 이제 어엿한 대졸자가 될까 동시에 대한민국 국군 장교단의 일원이 된다. 조국·명예·충용의 가치를 담아 우리 학교에서 여러분들에게 수여한 학사 학위를 소중히 하고, 그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학위 앞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59기, 60기 생도들! 우리 학교는 여러분들을 편입학으로 뽑음에도 전직 대학 전공과 무관하게, 희망하는 전공을 택할 수 있게 해준다. 필자는 이것의 의미가 여러분들이 어떠한 전공을 배우든 간에 일정 수준의 성취도를 항상 보여줄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단히 노력하자!

‘학사 학위’란 무엇일까?



육군 3사관학교

3학년 편입학 사관학교

원서접수 : 2023. 4.24(월) ~ 5.31(수)

2024학년도 정시생도 61기

2025학년도 예비생도 62기

• 접수 : 인터넷(www.univapply.co.kr)
 • 문의 : www.kaay.mil.kr 054)330-3720~23/3701~02

• 학력 : 4년제대학 2학년 이상 수료(예정) 및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학력 : 2·4년제 대학 1학년 재학생, 3년제 대학 2학년 재학생
 • 연령 : '99.3.1~'05.2.28 출생의 대한민국 국적의 미혼남·여
 • 연령 : '00.3.1~'06.2.28 출생의 대한민국 국적의 미혼남·여

사관생도 모집

저명인사칼럼 I



양재생
(은산해운항공(주) 회장)

존경하는 육군3사관학교 58기 사관생도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힘든 교육 과정을 끝내고 맞이한 영광스러운 졸업과 임관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명예를 존중하고 투철한 충성심, 진정한 용기, 필승의 신념, 임전무퇴의 기상과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가진 대한민국 군인의 책무를 수행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여주실 국가에 대한

희생과 헌신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신뢰와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아들과 딸이 조국을 위해 헌신하

3사관학교 생도는 사회에서 일반 대학의 학분을 각기 전공하고 여기 3사관학교에서 장교로서 필요한 군사

정의로운대한민국 군대의 리더가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는 숭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신 3사관학교 생도의 가족과 부모님, 방성대 학교장님을 비롯한 학교 간부님들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훈련과 지식을 습득한 융복합 인재들입니다.

21세기는 융복합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 현장뿐 아니라 우리 육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사 지식뿐 아니라 정보통신, 어학, 미디어, 생물학 등 각기 다른 풍부한 지식이 앞으로 대한민국 육군 발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오늘날 임관하는 여러분은 용기와 전문지식을 갖춘 초임장교로서 각 부대에서 과업을 수행할 것입니다. 국가에 봉사하는 삶은 고달프고 힘든 시기가 많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모교인 3사관학교에서 교육받은 리더로서의 교육과 동기들과 함께 이겨낸 고된 훈련의 추억을 떠올리며 이상을 꼭 실현하는 군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육군 장교가 되신 것을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강철같은 신념으로 항상 고난을 기회로 만드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인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된다! 된다! 잘 된다! 더 잘 된다! 초긍정적인 행복에너지를 전합니다.

저명인사칼럼 II



권태균
(前 주UAE 대사관 대사)

최근 중동이 우리의 관심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세 왕세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이 작년 11월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재계 총수들과 회동하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NEOM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여러 가지 투자사업을 논의하였고, 올해 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하여 37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약정을 체결한 것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의 관심을 끌었다.

가장 동쪽에 있는 이란에서부터 서쪽으로 모로코에 이르는 광대한 중동에서 우리의 주목을 받는 곳은 걸프만에 연해 있는 6개의 산유 부국으로 구성된 소위 'GCC 국가'들이다. 최근 한 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GCC 국가들은 지난해 평균 GDP 성장률이 6.5%를 기록하였고 올해도 전 세계 평균보다 높은 3.6%의 탄탄한 성장

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들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국가가 UAE다. 6개 나라 중에 가장 진취적이고 개방적인 나라이기도 하고,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으면서도 세계적인 제조강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의 협력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이기 때문이다. 무함마드 빈 자이드

형 원전의 해외 수출길을 열어주었다. 이러한 신뢰 관계는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 때 다시 한번 확인되어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들로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전통적인 에너지와 인프라건설 분야 외에도 수소 산업, 반도체, 보건 의료, 지능형 농장까지 협력 분야가 다변화되고 있다.

중동의 개방국가 아랍에미리트와 우리의 국익



자료출처 : 뉴시스

현 UAE 대통령은 만약 에너지 위기가 온다면 형제 나라인 대한민국에 최우선적인 고려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도 있다. 특히 2009년 프랑스를 제치고 우리에게 총 200억 불에 달하는 원전 4기의 건설을 맡김으로써 한국

UAE에는 특전사로 구성된 우리 아크부대가 2011년부터 파병되어 지난 10년 이상 긴밀한 군사협력 관계를 구축해 오고 있기도 하다. UAE 군에 대한 훈련 지원이 주 활동이지만, 고공강하 등 공동 훈련을 통해 관계를

강화하고 있고, 유사시에는 중동지역에서의 우리 교민 보호 활동도 그 중요한 임무 중 하나다. 2011년 아덴만 여명작전 당시 사로잡힌 소말리아 해적들을 서울로 압송하는 역할을 아크부대가 담당하기도 하였다.

군사협력 중 앞으로 많이 기대되는 것은 방산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GCC 국가들은 모두 산유국들로 주변국들과의 분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군사력을 보강하기 위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UAE의 현 무함마드 대통령 자신도 영국의 공군사관학교를 나온 파일릿 출신으로 한때 공군 사령관과 UAE군 부총사령관을 역임하였다. 무함마드 대통령이 한국이 개발한 다양한 무기와 방어체계에 관심이 높아 직접 관심을 표명하기도 하는 등으로 방산 분야의 협력은 양국 간 군사협력의 유망한 분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동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 우리나라가 휴대전화와 승용차에서 세계적인 위치로 올라선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고, 많은 젊은이가 K-pop 등 한국의 문화에 열광하고 있으며, 우리의 높은 의료수준을 보고 해외 치료지로 선택하여 방문한다. 제2의 중동 붐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 기회가 된다면 UAE를 방문하여 견문의 기회를 직접 높여볼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

2023트렌드 노트

MZ, 이제 그만



최재연

바이브컴퍼니 생활변화관측소 연구원

‘MZ’는 2020년 소셜데이터에서 처음 유행하기 시작한 신조어로,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합친 단어이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MZ’를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재밌는 것은 M세대와 Z세대를 이렇게 묶어 부르는 것이 일상화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소셜 상에서의 언급량은 고점을 모르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현재는 월 3만 건을 거뜬히 넘어서는 이른바 ‘핫한 키워드’이다.



출처: 생활변화관측소, 트위터+블로그+커뮤니티+인스타그램+뉴스, 2020.01.01.~2022.12.31.

있다. MZ는 실제 없는 거대한 그림자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실제 MZ세대인 사람들은 스스로를 MZ세대로 여기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프를 보고 블로그, 커뮤니티 등에서도 점점 이야기되고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할 수 있다. “이게 요즘 MZ식 발음이에요”와 같이 특정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MZ라더라’고 밈(meme)화 된 것이다. ‘MZ

몇몇 브랜드 이름을 제외하고는 정책이나 제도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청년일자리’, ‘청년창업’, ‘청년실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청년은 도움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는 의미가 암묵적으로 담겨있다. 물론, 이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기도 하다. 청년 혼자 힘으로는 헤쳐나가기 어려운 사회인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지는 청년 정책에 사용되고 있다. 2022년 청년들 사이에서 가장 주목받은 정책 중 하나인 ‘청년희망적금’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2022년 청년 연관 감성에는 ‘절망’ 또한 강력하다. ‘청년희망적금’이 ‘청년절망적금’으로 불리는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제한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월 최대 납입액인 50만 원을 납입하고 나면 정작 생활에 쓸 돈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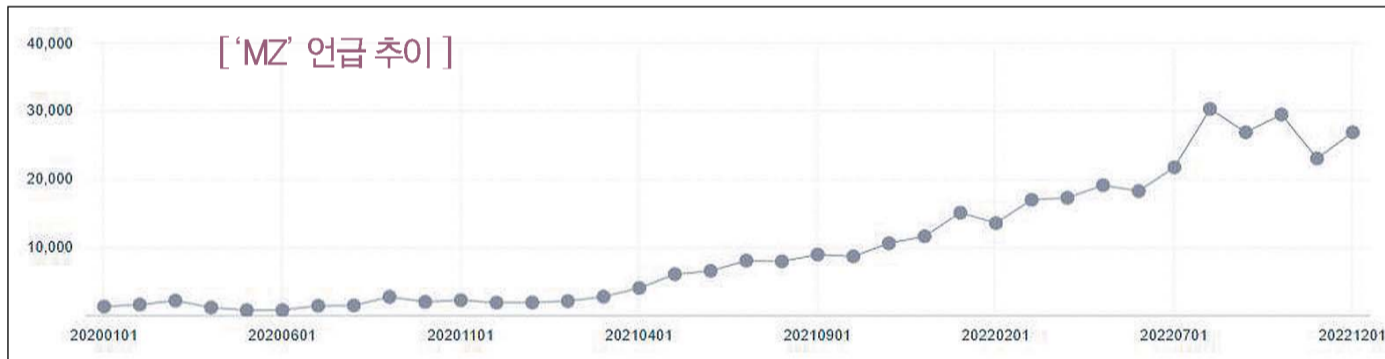
정부 지원으로 이자율을 높인 ‘희망’ 저축이 ‘절망’ 저축이 된 이유이다. 청년에 대한 인식의 모순이 바로 이 지점에 있다. 청년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 국가가, 사회가, 주변 기성세대가 도움을 주고자 하지만, 정작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은 여전히 자립이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편의점 일비하면서 평균 50만원 벌어서 청년절망적금 달마다 50만 원씩 들어가고 학원비 25만 원에 교통비 학교다니면 10만 원 정도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85만원인데 나는 50만 원을 벌고.. 아껴 써야지..”

청년희망적금이 1년 되는 2023년 1월에는 이런 트윗도 많은 공감을 샀다.

“드디어 청년희망적금 저축장려금 메시지 받았다. 청년절망적금 1년이나 채운 나 새끼 기특해, 빨리 만기가 왔으면 좋겠다.”

미디어가 대상화한 희망찬 모습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지금, 청년들은 자신에 대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



출처: 생활변화관측소, 트위터+블로그+커뮤니티+인스타그램, 2020.01.01.~2022.12.31.

‘○○세대’라고 이름 붙이기에 익숙한 우리 사회는, 기성세대와는 무언가 다른 젊은 세대를 MZ세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실제로 밀레니얼부터 Z세대를 엮어 보면, 1980년도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걸쳐 태어난 거대한 무리를 일컫는 말이 된다. 하지만 20년의 세월은 강산이 두 번 바뀐다고 하였듯, 얼리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부모세대와 자식 세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갭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세대와는 무언가 다르다고 인식하면서 사실상 Z세대를 의미하는 MZ세대라는 말이 곳곳에서 퍼져나갔다.

세대’로 분류되는 많은 경우 다음과 같은 반응이 나온다.

“MZ리는 말 누가 만든 거임? 나랑 10살 넘게 차이 나는 40살도 MZ라던데 우선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일단 M세대와 Z세대를 묶어서 말하지 마세요. 서로 말안 통합니다.”

과연 MZ는 누구인가? MZ의 진짜 이름은 무엇일까?

바야흐로 ‘그들’을 또는 ‘스스로’를 MZ세대라 부르는 데 피로를 느끼기 시작한 지금, MZ를 대체할 단어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청년’이 아닐까 싶다.

MZ세대가 타자화된 단어인 것처럼, 사실 ‘청년’ 또한 타자화된 대상이다. 여기서 ‘타자화’는 자신과는 다른 사람이라 여기며 차이점을 부각하고, 나아가 그 차이점 때문에 소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시각을 의미한다. 우리가 ‘청년’이라는 키워드를 가장 많이 듣거나 사용할 때 가언제인지 떠올려보자.

사실 ‘청년’과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되는 키워드는 ‘희망’, ‘평화’와 같은 밝고 미래 지향적인 키워드이다. 앞서 ‘청년○○’ 네트워크에서 확인한 바 있듯, 청년에 ‘희망’을 붙인 말은 주로 정부에서 펴



출처: 생활변화관측소, 트위터+블로그+커뮤니티+인스타그램+뉴스, 2020.01.01.~2022.12.31.

10만 건당 문서 수를 기준으로 소셜 미디어별 ‘MZ’ 언급량을 살펴보았을 때, 대부분이 뉴스에서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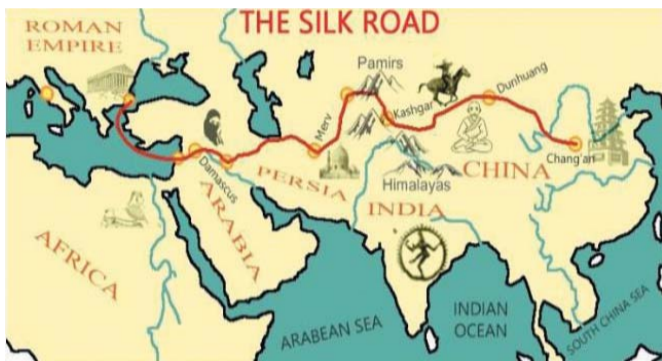
글로벌 경제망의 해체, 탈(脫)세계화

탈세계화의 정의, 사회적 배경, 그리고 효과

성경 희(‘주호선생’, 리얼스탁애널리스트)



시장경제는 생각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과거 인류는 필요한 물건을 얻기 위해 물물교환을 했다. 그러나 각각의 물건에 대한 효용이 서로 달랐고, 거래의 정확도가 떨어졌다. 오랜 물물교환 끝에 사람들은 최초의 화폐를 발명했다. 그것은 조개껍데기인데, 이 화폐를 통해 일반 등가물의 역할을 실현할 수 있었다. 화폐는 계속 발전하였고 구리, 금, 은, 종이, 플라스틱, 그리고 현재에는 가상화폐에 이르렀다.



편리한 교환의 매개체인 화폐가 발전되는 과정에서 그것의 편리함으로 사람들 간의 거래가 활성화 되었고, 국내뿐 아니라 타국과의 무역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문화와 과학기술을 서로 교류

하고 전파하였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로는 중국과 서역을 이었던 6,400km의 실크로드를 예로 들 수 있다. 실크로드는 한 나라가 경제, 환경, 문화를 다른 나라와 교류하는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의 포문을 연 것이다. 이후, 산업혁명을 거쳐 세계대전 및 냉전 시대를 지나, 비행기와 같은 빠른 교통수단과 컴퓨터, 인터넷 등이 발명되었다. 정치, 문화,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었고, 특히 경제를 중심으로 통합해 가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것이 바로 세계화(Globalization)이다.

세계화는 무엇인가?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세계화의 확산은 더욱 빨라졌다. 체제 간 냉전으로 인해 자유롭지 못했던 국경이 무너짐에 따라, 세계 각국의 자본이 저임금, 높은 생산성을 찾아 자유롭게 이동했다. 세계화 확산 속에서 세계무역기구인 WTO가 출범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각국 간 무역분쟁이 많았다. 미국은 301조를 남발해 무역압력을 행사하거나 국내 정책에 대해 일방적으로 강요하기도 했다. WTO는 이러한 분쟁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 간 경제분쟁을 객관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과세 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수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하며 산업, 무역의 세계화와 더불어 새로운 국제 무역환경 기반을 조성한 것이다. 한국이 FTA를 지속적으로 체결한 것도 이러한 국제 무역환경 조성의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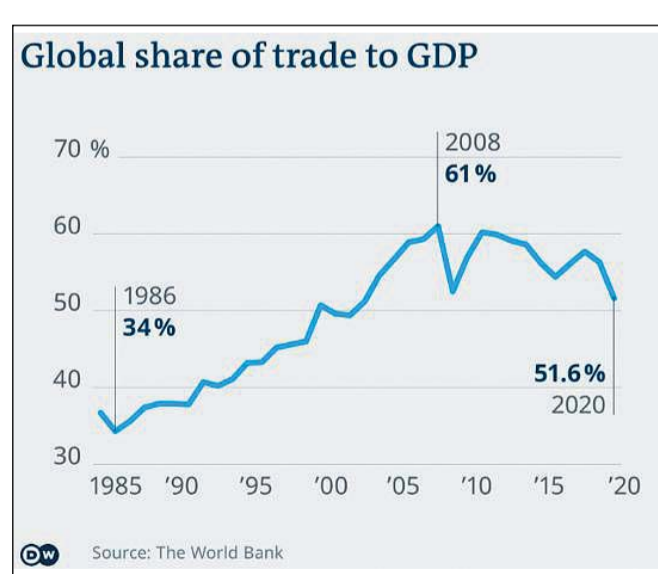
탈세계화와 그 배경

하지만 50년간 지속된 세계화 추세가 최근 꺾이고 있다. 탈세계화의 조짐이 보이는 것이다. 여기서 탈세계화(Deglobalization)란 세계화를 벗어나자는 주장이나 현상이다. 닷컴버블과 9.11 사건을 거쳐 세계화 속도가 느려졌고, 최근 지속된 경제위기 등

으로 세계화 추세에 후퇴의 조짐이 보인다. 탈세계화라는 단어가 점점 트렌디한 키워드로 주목받고 있고, 다양한 금융보고서에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탈세계화의 시작을 알린 구체적인 사건은 2016년 브렉시트 투표라고 볼 수 있다. 유럽 경제 공동체를 이루었던 유럽연합(EU)에서 영국이 탈퇴를 위해 투표를 단행한 것이다. 결국, 2021년 1월 1일 브렉시트가 현실화 되었다. 다음으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 것도 탈세계화로의 경제 프레임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은 미국 국민에 의해 통치된다. 우리는 세계주의 이념을 거절하고 애국주의를 신봉한다.”고 언급함으로써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와 더불어 탈세계화 노선을 알린 것이다. 수십 년간 세계 경제의 수호자 역할을 해 온 미국의 경제 프레임 변화에 세계 경제의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이런 글로벌 무역 전쟁 외에도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탈세계화를 앞당기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화 시스템의 결함이 노출된 것이다. 전 세계에 얽혀있는 글로벌 공급망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아이폰은 대만 기업과 계약하고 있는 중국의 공장에서 생산되어 전 세계 시장에서 판매된다. 반도체 같은 핵심 부품은 한국과 일본에서 생산된다. 그런데 전 세계에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급망이 재난 상황에서는 언제든 붕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식량과 자원을 무기화하는 극단적 보호무역주의로 이어진 것이다. 세계의 밀 수출 대부분을 담당하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생산이 제한되자 인근 국가들은 식량안보를 목적으로 농작물이 해외로 나가지 못하게 보호무역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보호무역과 자원 무기화로 현재 전 세계에 대두되고 있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효과까지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세계화의 약점이 계속 드러나며 탈세계화에 대한 언급이 계속되는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세계화’ 되는 ‘탈세계화’ 기조에 대해서 한국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일단, GDP의 55%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장단기적 대응전략



이 필요하다. 생산요소 시장이나 원자재시장의 관점에서 탈세계화에 따른 갑작스러운 공급중단으로 인한 생산 중단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야 한다. 최근 삼성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카메라 등 거의 모든 핵심 부품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제조하거나 계열사를 통해 조달하며, 완제품을 직접 생산해 판매해 나가는 완전 수직계열화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이 주목받고 있다. 탈세계화 기조로 반도체 공급 부족과 물류난으로 생산 차질을 겪고 있는 애플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탈세계화 분위기 속에서 가장 싸고 쉬운 공급망보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공급망이 더 낫다는 판단이 기업들에 내려지는 것이다. 물론, 지금의 탈세계화라는 키워드가 단순한 해프닝이라는 학자들도 있다. 하지만 경제 대국 미국이 이 키워드를 주도하는 만큼,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도가 높은 한국은 그 영향이 탄력적일 것이다. 새로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며, 미래 경제를 위해 대비해야 할 시기이다.



동문(同門)의 소리

소위의 중력



중위 정아란(3사 56기)
제15보병사단보충중대 정작장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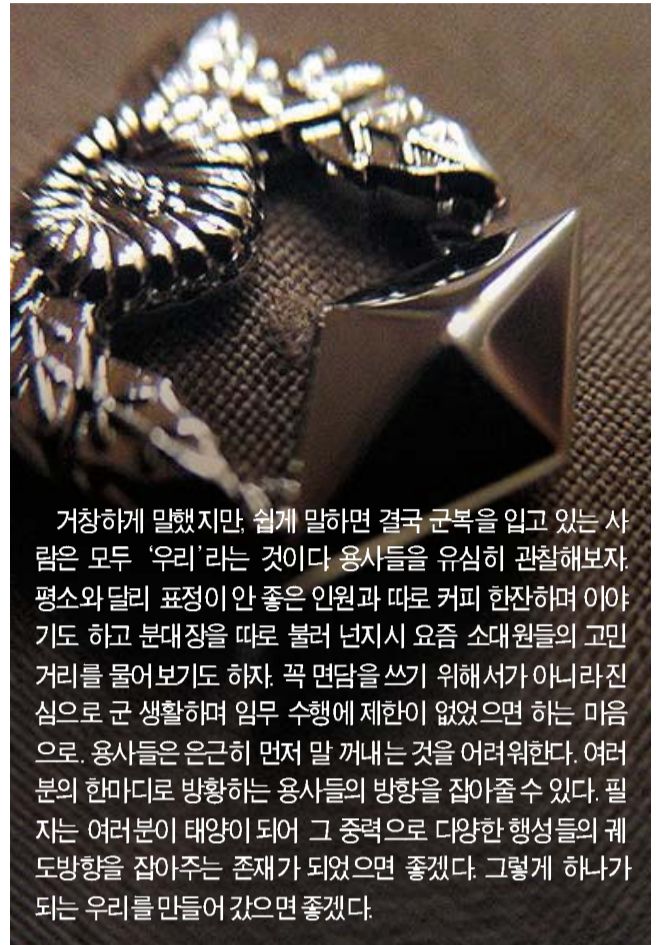
라는 하나의 단어로 묶는 것은 우리의 다양성을 하나의 철없는 아이들로 만드는 것 같아 답답지 않다. 그런 필자도 요즘 병사들을 보면 '요즘 애들은...' 하게 된다. 지금의 여러분은 자신이 기성세대가 아니라 어린 세대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위치는 상대적인 것. 계급장을 다는 순간 여러분은 내가 그랬듯 기성세대의 입장에서 용사들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리더가 되고 싶다면 '요즘 애들은'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자신의 마음을 경계해야 한다. 다양한 특성을 가진 우리를 'MZ'로만 묶는 것이 답답지 않듯이, 모든 용사를 '요즘 애들'로 묶는 것 또한 조직을 단단하게 만들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몇몇 용사들은 "간부를 저희의 적으로만 생각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어른의 중력'이라는 책에서는 쿼터라이퍼라는 말을 사용한다. 어른도 아이도 아닌 주변을 맴도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인다고 하니, 우리 말로는 '주변인' 쪽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용사들은 쿼터라이퍼다. 게으르거나 반항적인 것이 아니라, 방황하는 것일 뿐이다. 그 방향을 잘 이끌어줄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 시스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의 지휘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충성기초군사훈련을 받을 때, 3학년 생도였을 때 어떤 것이 가장 힘들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용사들이 '주변인'으로 느껴지지 않은 것이

용사의 입장에서 지휘하면 그들도 조직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한 사람의 간부가 바뀌면, 열 사람, 아니 최소한 30명의 용사가 바뀐다. 필자는 그렇게 생각한다.



거창하게 말했지만, 쉽게 말하면 결국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은 모두 '우리'라는 것이다. 용사들을 유심히 관찰해보자. 평소와 달리 표정이 안 좋은 인원과 따로 커피 한잔하며 이야기도 하고 분대장을 따로 불러 넘기시 요즘 소대원들의 고민 거리를 물어보기도 하자. 꼭 면담을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군 생활하며 임무 수행에 제한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사들은 은근히 먼저 말 꺼내는 것을 어려워한다. 여러분의 한마디로 방황하는 용사들의 방향을 잡아줄 수 있다. 필자는 여러분이 태양이 되어 그 중력으로 다양한 행성들의 궤도방향을 잡아주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가 되는 우리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알 립 니 다

총동문회관 확장을 위한 '월 1만 원 기부운동' 전용 통장 개설

총동문회에서 동문회관 확장을 위한 '월 1만 원 기부운동' 전용 통장을 개설하였습니다. 현재까지의 기부 금액을 포함하여 매월 명단과 금액을 공지하여 투명하게 관리 될 예정입니다. 월 1만 원의 기부운동은 1만 명 이상의 동문 참여를 목표로 계속해 나갈 것이며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현재 참여 중이신 동문들은 현재 방법으로 계속하시면 되니 혼란이 없길 바랍니다.

우리은행 1005-203-267020, 예금주 : 육군3사관학교 총동문회

3사 총동문회



총동문회 시무식 행사

1월 4일,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맞이해 박주왕 총동문회장을 비롯한 역대 회장, 총동문회 임원진, 각 동기회 임원 등 40여 명이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하여 참배한 뒤 시무식 및 인사회를 가지며 새해 결의를 다졌다. 총동문회장은 순국선열과 선배 전우들의 넋을 위로하였으며, 참석자 모두는 총동문회의 발전과 동문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였다.

3사총동문회



모교 발전을 위한 지원 TF 준비토의

1월 18일, 총동문회에서는 박주왕 총동문회장 주관으로 모교 발전 및 우수생도 모집을 위한 정책적 지원 TF 준비토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전문성과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TF를 구성하고, 모교 발전과 후배들의 앞날을 위해 국회 국방위를 통한 입법 추진, 연구추진, 국방부·육군본부 정책과제 반영 등의 추진 방향을 논의하여 관철 시까지 노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 참석자: 박주왕(19기), 김일생(8기), 이철성(9기), 이창효(19기), 박동순(20기), 박준석(22기), 한경수(22기), 김형남(28기), 류재철(33기), 정재욱(48기)

3사총동문회



총동문회 39차 임시이사회 개최

1월 26일, 총동문회관 회의실에서 39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총동문회장을 비롯한 77명(참석 46명, 위임 31명)이 참석하였으며, 이사회는 2023년 총동문회 주요사업 보고를 시작으로 2022·2023년 예산 안건보고와 정관개정 경과보고 및 의견수렴의 순서로 이사회가 마무리되었다.

3사총동문회

학교 발전재단 소식

2023년도 학교발전기금 참여 현황

'23. 1. 1 ~ 2. 28까지 기부현황입니다.

※ 범례 : 해당기간 기부액(총 기부액)

총 자산 89억(2023.2.28 기준)

■ 단체

은해사 500(총 1억 4500), 22사단 3사동문일동 100, 3사 58기 동기회 3,000, 3사55기 동기회 500, 58기 8중대일동 30

■ 학교발전 동창 특별기부자('23. 1. 1 ~ 2. 28 기부현황)

천윤환(육사#47) 5(5), 김호길(육사#48) 2(71), 두석주(육사#51) 2(220), 류지만(육사#52) 2(3), 이우진(육사#54) 2(82), 조상근(육사#56) 2(155), 변용성(육사#58) 2(121), 이규현(육사#59) 1(114), 이주실(육사#59) 2(100), 김대영(육사#61) 2(188), 문은석(육사#62) 2(94), 김진찬(육사#61) 2(85), 홍희중(육사#61) 2(117), 송태권(육사#63) 2(30), 홍인재(육사#65) 2(50), 김희준(육사#67) 2(14), 문준호(육사#67) 2(61), 조지웅(육사#68) 2(22), 권성진(육사#69) 2(48), 정운혁(육사#78) 6(35), 한덕수(학군#26) 2(127), 남기웅(학군#29) 2(32), 임문택(학군#34) 2(26), 송경재(학군#37) 2(144), 정우람(학군#46) 2(38), 홍현신(학군#48) 2(40), 김현식(학군#49) 1(24), 최병찬(학군#52) 2(16), 권영환(학군#56) 2(8), 최재호(학사#29) 2(144), 임도현(학사#54) 2(123), 구주현(학사#55) 2(46), 박수영(학사#56) 2(38), 성현애(학사#56) 2(66), 심정현(학사#58) 2(54), 김형태(간부#22) 2(74), 최윤정(간사#38) 2(59), 송소연(간사#59) 2(40), 문길섭(준위) 2(2), 강필승(군무원) 2(8), 이수진(군무원) 2(30), 정시연(군무원) 2(41), 박해원(선한목자교회 장로) 100, 윤석진(신분미 확인) 1(1)

■ 졸업생 가족('23. 1. 1 ~ 2. 28 기부현황)

조경해 (#45 황정태 모) 10(900), 백인숙 (#47 ○○○ 모) 2(55), 성동모 (#50 성열환 부) 4(242), 안순봉 (#51 박상응 모) 20(1,140), 김현미 (#52 오치원 모) 1(66), 이영미 (#52 황성규 모) 6(352), 정정화 (#52 조강현 모) 2(360), 박일식 (#53 정필승 모) 4(159), 조정숙 (#53 유영빈 모) 6(160), 서완수 (#55 서지찬 부) 4(118), 정원석 (#55 정준영 부) 2(136), 송학빈 (#56 송용준 부) 2(82), 정희숙 (#56 배용휘 모) 20(1,360), 조재훈 (#56 조성진 부) 30(290), 강혜영 (#57 고원석 모) 2(30), 김근택 (#57 김광진 부) 4(62), 김순말 (#57 김준모 모) 2(58), 박경석 (#57 박찬환 부) 4(70), 양내석 (#57 양철민 부) 20(310), 오유미 (#57 김주현 모) 4(66), 이동희 (#57 박찬환 모) 6(89), 지마리아 (#57 김대현 모) 10(275), 구학분 (#58 정도영 모) 2(24), 김한영 (#58 김범수 부) 10(65), 심순권 (#58 심동주 부) 100(100), 유영환 (#58 유수민 부) 4(16), 진경화 (#58 김태욱 모) 10(185), 최결순 (#58 최승환 부) 3(35), 한민근 (#58 한현우 부) 4(58)

■ 재학생 부모('23. 1. 1 ~ 2. 28 기부현황)

▶ 59기(4학년)

김민순 3(33), 김애령 6(36), 박주연 20(220), 배범순 3(7), 신경희 10(30), 임승남 4(24), 장연복 2(13), 정신 2(12), 정영남 4(24), 조철만 4(4), 지은주 50(100), 최인 10(60), 최형준 2(8)

▶ 60기(3학년)

강남연 20(20), 김병운 100(100), 김보현 1(1), 김숙자 1,000(1,000), 문연호 10(10), 박대호 10(10), 손석호 10(10), 송운환 100(100), 이경미 100(100), 정미경 5(5), 정양수 10(10), 정영환 100(100), 정재문 50(50), 최정민 10(10), 탁점숙 100(100), 홍영옥 1(1), 홍혜숙 1(1), 황선미 100(100), 황윤화 500(500)

■ 졸업생('23. 1. 1 ~ 2. 28 기부현황)

- ▶ 1기 김용하 4(188), 남훈조 15(1,464), 민석식 12(137), 이기권 1(550), 임관택 2(98), 최익환 2(100)
- ▶ 2기 윤경혁 5(580) ▶ 4기 임성기 10(120)
- ▶ 9기 권영호 10(510), 김현기 6(1,236), 김희숙 10(200), 윤지환 6(195), 이환희 5(110), 최병학 10(1,325)
- ▶ 11기 신사순 50(100)
- ▶ 13기 권태오 10(140), 문성묵 20(420)
- ▶ 14기 김길영 2(116), 김중환 1(73), 안호 40(2,150), 이용진 10(370), 이종학 4(135)
- ▶ 15기 김성연 2(543)
- ▶ 16기 이영호 2(145), 이종우 2(178), 황병태 2(326)
- ▶ 18기 구연덕 2(148), 금용백 6(624), 이기환 2(43), 진기상 2(1112)
- ▶ 19기 김익수 4(219), 이경희 1(190), 이종형 6(307), 이창호 6(630), 홍성식 2(213)
- ▶ 20기 박권순 4(184), 서정열 2(511)
- ▶ 21기 신철수 2(1,202), 이정문 4(246)
- ▶ 22기 권순태 2(70), 김면수 10(180), 정경호 1(62), 조태환 4(175), 천병구 4(484), 홍성덕 10(251)
- ▶ 23기 김태일 2(248), 신영찬 2(89), 오승욱 4(300), 최승환 2(25), 허강수 4(315)
- ▶ 24기 곽중만 4(88), 권오봉 2(232), 김도협 2(250), 김성래 4(68), 김지영 16(1,018), 남용구 4(320), 모경원 2(245), 박세철 2(88), 방성대 6(163), 이문희 2(110), 정정현 2(209)
- ▶ 25기 문봉성 2(171), 이은진 12(100), 장무수 2(67), 전희준 2(323), 조재희 2(141), 홍은표 2(217)
- ▶ 26기 고창준 10(364), 신태영 2(111), 양성안 1(20), 유근환 1(53), 이덕우 2(145), 이원주 6(172), 이태인 4(98), 임우영 2(262), 장용빈 2(141)
- ▶ 27기 김관수 6(133), 김덕중 2(86), 김성오 4(66), 김용범 2(52),

- 김지덕 2(40), 김호복 8(329), 석수열 2(63), 이희순 2(258), 정월균 2(62)
- ▶ 28기 권승영 1(34), 권양철 2(126), 김진길 1(97), 김창현 1(181), 박용섭 4(209), 유정일 1(53), 윤석찬 1(158)
- ▶ 29기 김강식 2(263), 김태영 4(66), 박성훈 2(171), 박태용 2(150), 이상일 2(206), 임성호 2(182), 최인섭 2(144), 현태식 2(168)
- ▶ 30기 김광석 4(38), 김종권 2(102), 김효성 2(62), 남진오 2(73), 이병길 2(37), 이진 2(167), 임상달 2(137), 주경호 2(132), 홍성범 2(55), 함민호 2(118)
- ▶ 31기 권동호 4(96), 김민식 4(134), 김영태 2(199), 김태희 2(27), 김희엽 2(244), 염항수 2(154), 이재춘 2(228), 이훈복 2(66), 최대집 2(64), 전경민 2(51)
- ▶ 32기 권관덕 4(350), 김화용 2(131), 사인우 2(153), 이태현 2(42), 주정용 2(2)
- ▶ 33기 권해국 2(54), 김남식 1(181), 김성근 4(180), 김현규 4(428), 남석진 2(155), 노일 6(218), 신성균 1(1), 안경일 2(252), 안준영 6(173), 조재봉 2(128)
- ▶ 34기 김기수 2(198), 김민오 4(20), 김윤성 2(63), 김홍식 6(489), 이무이 2(422), 임창훈 2(98), 정웅민 2(223), 정창근 2(124), 정춘황 2(74), 조수창 2(199), 홍영기 2(43)
- ▶ 35기 김경철 2(27), 김수열 2(87), 박병준 6(362), 박상천 2(46), 박시근 2(201), 송명성 4(96), 이문희 2(167), 이호순 6(64), 임창규 2(125), 장삼순 2(162), 전성광 2(56), 정병삼 3(169), 정영석 2(123), 정호준 4(130), 하중수 2(43), 한중훈 4(403)
- ▶ 36기 김도희 4(90), 김동혁 2(107), 김명규 1(62), 김현 2(146), 안경우 3(319), 양현승 2(223), 이광희 2(168), 이규호 2(133), 임종수 2(88), 장세호 2(219), 정우철 2(154), 조동권 2(235), 진연수 2(179), 홍기양 2(5)
- ▶ 37기 강성봉 2(188), 김양훈 6(291), 김충기 4(183), 김흥년 2(250), 노진철 2(164), 문장권 2(38), 송석봉 4(187), 송용섭 4(321), 엄태환 2(8), 옥원호 2(150), 이관모 2(156), 이용구 4(96), 이원형 4(311), 임원철 2(171), 장학선 10(120), 전성진 2(145), 정우진 2(88), 정태욱 2(148), 정화철 2(144), 최정호 2(56), 최하용 3(108), 함성규 2(121)
- ▶ 38기 김대현 2(41), 모을하 2(249), 문정민 2(134), 문현성 2(247), 서성걸 2(91), 이경식 2(195), 위재익 4(109), 정한욱 2(226), 함기훈 2(102)
- ▶ 39기 권웅 2(62), 김의진 2(143), 김민경 2(101), 김지훈 4(123), 박철균 2(137), 송창현 4(147), 심용은 2(106), 양운차 2(84),

- 이대화 2(229), 이웅렬 2(125), 이준석 2(93), 장동준 4(95), 정대겸 2(44), 최현철 2(290)
- ▶ 40기 구자은 4(206), 김백린 2(216), 김영우 6(298), 김우형 4(42), 김종욱 2(57), 김형수 2(193), 남태근 2(52), 박상규 2(70), 박진하 2(109), 송석준 2(154), 유형선 2(100), 이호연 10(778), 이훈석 2(76), 주영우 1(38), 최창국 2(112), 하성남 5(27)
- ▶ 41기 권영철 2(83), 김석진 10(328), 박한지 2(203), 방현욱 2(93), 손종득 2(111), 임성은 4(153), 전종상 10(287), 정기채 2(203), 최민규 4(145), 최지능 2(226)
- ▶ 42기 강구한 2(34), 강재석 2(121), 강정희 2(170), 공광석 2(76), 김동우 2(144), 김동진 2(113), 김용민 2(80), 박용준 6(82), 박효찬 2(170), 손병현 2(188), 윤희철 2(164), 이기욱 2(111), 이승은 2(170), 이용학 2(173), 정민기 2(163)
- ▶ 43기 강민식 4(274), 김용태 2(109), 김인중 2(254), 노창래 2(61), 박희영 2(77), 배동철 6(190), 백두산 4(270), 엄태섭 2(62), 이남익 1(81), 이도훈 2(145), 이상민 1(160), 이홍희 4(257), 이준명 2(98), 이호선 2(100), 최진호 4(119), 허광석 2(109)
- ▶ 44기 김대는 2(121), 김승돈 4(30), 김인찬 2(62), 권용혁 4(64), 서동준 2(156), 엄태현 2(109), 오승우 6(91), 이민재 2(148), 이영민 2(157), 이희성 4(173), 최재근 2(88), 황재혁 2(47)
- ▶ 45기 권기호 2(151), 김동호 2(159), 김성수 4(141), 박영일 2(154), 서석관 2(170), 신유철 2(144), 이인권 2(99), 이진희 4(162), 정재현 2(153), 정진우 2(156), 채희용 2(134), 최충수 2(157)
- ▶ 46기 강승용 4(290), 김대영 2(57), 김명철 2(143), 김정렬 2(143), 김정호 2(260), 김진용 2(177), 박수만 2(49), 백인정 2(143), 송원상 4(236), 오기리 2(141), 이상운 2(143), 이신화 6(381), 이수원 2(146), 이진철 2(134), 정종택 6(431), 조광연 2(81), 조수빈 2(105), 차승우 2(105), 표상열 2(143), 한영민 2(143), 홍한표 2(134)

▶ 57기 최범구 100(111) ▶ 58기 황영호 6(66) ▶ 59기 이용훈 10(55)

▶ 47기~57기 자동이체 기부('23. 1. 1 ~ 2. 28 기부현황)

기수	47	48	49	50	51
명민원	59(119)	65(138)	85(181)	40(88)	11(26)
	52	53	54	55	56
	280(561)	230(482)	232(501)	368(813)	331(721)
	309(830)				

▶ **지면제한으로 47~57기 기부현황을 기재 못한점 양해바라며** www.kaayf.or.kr 또는 "충성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확인 가능 하니 참고바랍니다.

육군3사관학교 발전에는 모두 한마음



은해사는 그간 학교발전기금 총 1억 4500만원을 기부하면서 3사관학교 발전을 위해 물질상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2023년 2월 27일 3사관학교 교정에서 열린 58기 입관 및 졸업식 행사 당일 다양한 의미가 담긴 학교발전기금을 기부함으로써 큰 감동을 선사하여 주었다.

58기 졸업생 6억 2천만원 (동기회 3천만원, 개별약정 5억 9천만원) 약정기부

동기회장 윤태영 소위가 생도대장(기금조성위원장)에게 58기들의 의지를 담은 약정서를 전달하여 정든 모교를 나서는 학교발전의 염원을 행동으로 보여주어 큰 박수를 받았다.

영천 은해사(총무국장 정한스님) 학교발전기금 500만원 기부



졸업생 및 귀한 특별기부자의 진심어린 손길들

58기 신사순(1기 前광주3사동문회장) 동문은 후배들의 지랑스런 모습을 보기 위해 광주에서 지인 부부와 함께 졸업식 행사 전에 재단사무국에 도착후 50만원을 기부하시 동행했던 박해원(장로부부 역시도 신사순동문의 모교사랑에 감동해 즉석에서 100만원을 기부하며 학교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해 주었다.



에 재단사무국에 도착후 50만원을 기부하시 동행했던 박해원(장로부부 역시도 신사순동문의 모교사랑에 감동해 즉석에서 100만원을 기부하며 학교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해 주었다.

발전기금 참여안내

입금계좌 육군3사관학교 발전기금(예금주)

• 농협 : 766-01-003094 • 국민은행 : 620-01-0861-994

• 우체국 : 900969-01-003463 • 대구은행 : 049-05-005898-6

※ 기부자 정보 수정 희망시에는 재단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054) 330-3180, 3182